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2월 후원미사는 16일, 2020년 1월 후원미사는 13일, 2020년 2월 후원미사는 17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9년 10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3,064,710	전월아월금	46,152
지 로	2,063,350	우리은행	2,971,640
국민은행	3,991,000	하나은행	1,066,110
조흥은행	85,010	신한은행	985,090
외환은행	272,500	제일은행	110,010
농 협	1,120,000	기업은행	370,000
우 체 국	3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5,2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쉼터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0,525,000	
지원금	노동사목회관	2,0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565,862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3,090,862	잔액(이월금)	20,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9. 11 / 제41호

펴낸날 2019. 11. 18.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사랑하는 후원자 여러분!

'GODISNOWHERE'라는 단어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GOD IS NO WHERE."(하느님은 어디에서도 계시지 않습니다.) 또는 "GOD IS NOW HERE."(하느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니다.)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선택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거나 인식하지 않습니다. 만약 "GOD IS NOW HERE."(하느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니다.)가 보이고 받아들였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본 하느님의 부르심은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입니다.

11월은 기억해야 하는 달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 안에서 더 나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면 죽은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믿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과 그 다음 날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을 '상호연결성'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례력 안에서도 '상호 연결성' 안에서 '다해의 끝과 새로운 '가해의 시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절의 변화와 나뭇잎의 색깔에서도 이러한 '상호연결성'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서 인간의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나뭇잎이 뿌리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의 이민자들인 우리는 영원한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전 세계 안에서도 이러한 '상호연결성'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28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베트남에서는 11월 24일 베트남 순교자 축일에 순교자들이 봉헌한 피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 보면 교회에서는 11월 17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우리의 관대한 마음을 나누도록 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11월 10일 '평신도 주일'에 모든 평신도들이 교회, 사회,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11월 24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 분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호연결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승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먼 곳에서 개와 염소를 구별할 수 있다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스승님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가 "먼 곳에서 오렌지 나무와 레몬 나무를 구별할 수 있으면 바로 그때가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은 다시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대답을 했을 때 역시 스승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의 형제나 자매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바로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밤의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날개를 가진 천사이며 서로를 껴안을 때만 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베트남공동체 소식*



베트남 공동체는 매년 1년에 한 번 성지순례를 가며 이번에는 11월 3일에 배론성지로 다녀왔습니다. 미사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리고 잠 시나마 한국의 순교성인들을 삶을 배우고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타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은 성지순례가 주는 고요한 평화 안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인천교구와 대전교구의 베트남 공동체 신 자들도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집 소식*

지난 10월 12일 입소가족, 임대주택가족 15명과 함께 포천 산정호수와 한 탄강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가을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들 간에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엄마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아져 행복지수 도 더불어 높아지면서 입소자들간의 애착심을 기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고네지역아동센터 소식*



마고네지역아동센터에는 신학생 3명이 정기적으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예수님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매 주 금요일 오후2시~4시, 초등저학년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영화시청(이집트 왕자 영화를 통해 신앙심의 씨앗 심어주기), 페이퍼아트 성당 만들기(성당 만들기를 통한 가톨릭에 대한 경험), 제병만들기(음식 만들기를 통해 성체성사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기) 등을 계획하여 마고네 학생들이 예수님, 성당 등을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들을 실천해주셨

습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성복소방서합동 소방대피훈련 ▶



◀가을나들이 북서울 꿈의숲

문화알림 축제 2편



로이 끄라통은 11월 태국 최대 축제 로이(Loy)는 태국어로 '떠나 보내다', 끄라통(Krathong)은 '바나나 잎으로 만든 작은 바구니'를 뜻합니다. 풀이하면, 강에 작은 등불을 띄우며 소원을 기원하는 민속축제입니다. 물과 함께 액운은 떠내려가고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소원을 담아 띄우는 이 등불은 바나나 잎, 꽃, 쌀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잎으로 만든 조그만 연꽃 모양의 배를 향초와 생화로 꾸미고 강가나 호수 변에 띄워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때 촛불이 꺼지지 않고 떠내려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어두운 강가에 작은 빛이 모여 화려한 경관을 이루는 모습 때문에 빛의 축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로이 끄라통은 지역마다 행사는 다르지만 생명의 원천인 물에 감사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현재는 타이 전역은 물론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지로 퍼져 저마다의 특색을 지닌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블랙 나자렌 축제는 매년 1월 9일에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키아포 성당에 안치된 성상 '블랙 나자렌'을 수레에 싣고 거리를 행진하는 축제입니다. 블랙 나자렌이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실물 크기의 검은 얼굴 예수상을 가리키며, 1606년 멕시코의 조각가가 만든 예수상을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도중 배에 화재가 나 얼굴이 검게 변한 데서 그 명칭이 유래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마닐라에 들어온 이후 지진과 화재에도 훼손되지 않고 여러 차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1787년에 마닐라의 대주교는 성상을 키아포 성당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고, 이후 지금까지 블랙 나자렌을 처음 보관했던 장소에서 키아포 성당까지 옮기는 과정을 재현하는 형태의 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성스러운 블랙 나자렌의 행진을 직접 보기 위해 마닐라로 모여드는 인파가 1천만 명에 이릅니다.



칸델리아 성모마리아 축제는 페루 전통 음악과 함께 선보이는 각 지역의 민속춤, 개성 있는 전통 복장 등을 통해 페루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티티카카 호수'의 도시로 알려진 푸노에서 매년 2월 개최됩니다. 이 축제는 가톨릭의 전통과 안데스 세계관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강조된 종교적·문화적 성격을 지닌 축제로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재로 등재될 정도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행사로 평가됩니다. 축제의 상징인 칸델리아는 풍요와 순결을 상징하는 푸노의 수호신이며, 축제 기간 중 열리는 두 차례의 전통 춤 경연 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무용가들이 수백 가지의 전통 춤을 선보이며 서로의 기량을 뽐냅니다. 하이라이트는 푸노의 메인 거리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로 성모 마리아의 성상을 운반하며 형형색색의 지역 전통 옷과 이색적인 가면으로 분장한 참가자들의 춤과 전통 음악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